



한농연 정책부회장단 교육 실시

한농연중앙연합회가 시·군 현장과의 정책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한농연 정책부회장 교육을 가졌다. 지난 16·17일 충북 제천 청소년수련원에서 각 도연합회 정책부회장, 각 시·군 정책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육은 농업정책 및 협동조합, 지역농업 등 정책부회장의 기본능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처음 실시된 교육이지만 130여명의 정책부회장들이 참가하는 높은 열의를 보였다.



이번교육은 “한농연 2005년 정책기조”에 대한 신명운 정책부회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지역농업과 농업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탁명구 사무총장의 강연 등이 교육 첫날 진행되었다.

둘째날에는 “농민을 우리편으로”란 주제로 한국노총 이현수 국장의 선동교육이 실시되었다. 이현수 국장은 교육을 통해 “지역에서의 정책 생산”과 “내가 앞장서는 선동”등 현장감 있는 강연으로 정책부회장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번 행사 후 한농연은 ‘제5기 농축협조합장 공명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대책위원장에 신명운 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을 선임했다.





경기도 '신규 후계농업인 위탁교육'

경기도가 신규 창업농과 기존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교육을 한농연경기도연합회에 위탁, '2005년 신규 후계농업인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30·31일 이틀동안 인천 덕평수련원에서 한농연경기도연합회(회장 강우현)는 올해 선정된 신규 농업경영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덕영 경기도 농정국장, 탁명구 한농연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류이현 농업부 농지제도담당 사무관, 김기영 농촌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인식 농협대학교 교수,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 임인택 가나안농군학교 전임강사, 이원희 경기도 농업경영계장, 정훈교 한신대학교 교수 등이 강사로 초빙되었으며, 각 교육마다 교육생들의 높은 열의와 참여속에 현 농업의 농정시책과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시책, 농업경영분석과 전망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둘째날에는 경기도연합회 임원들과의 토론회 자리를 마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는 신규 후계농들이 평소 궁금해 하던 한농연에 대한 사안과 한농연의 2005년 사업 방향등의 설명이 있었다.



강원농업, 중국과 몽골 등으로 진출

한농연 강원도연합회는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이린(海林)시측과 현지 방문 등 5차례의 접촉을 벌인 끝에 올해 하이린시에 마련된 3천3m²의 밭에 국내 및 중국 옥수수품종을 시험재배기로 합의했다. 도연합회는 5월 초 하이린시 서울사무소측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말까지 옥수수 종자와 트랙터, 비료 등 농자재를 갖고 중국에 들어가 파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 중 옥수수를 수확해 현지의 기후조건과 생육상태 단위 면적당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내년부터 사료용 옥수수의 국내 여수입을 목표로 한 해외개척농업의 착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도연합회는 올해 시험재배 성과가 좋을 경우 내년부터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1차 사료 가공공장 등을 건립, 하이린시와 가까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국내로 들여올 방침이다.

국내에 필요한 사료용 옥수수의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행 유통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내농업의 활로를 해외에서 찾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강원도는 지난해 중앙아시아 몽골의 중앙도 보르노군의 초원에 시설하우스 1천650m², 노지 재배 6천600m² 규모의 강원농업타운을 건설하기도 했다.



한농연충북도연합회-농협충북지역본부, 회원 전용

한농연충북도연합회와 농협충북지역본부는 지난 8일, 한농연충북회원카드 발급 및 농촌사랑운동 협력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조인식은 WTO·FTA·DDA 등 거세지는 농산물시장개방 압력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농촌을 돕고 농촌사랑운동을 범도민적 실천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농연은 앞으로 1사1촌 자매결연 후보마을 추천과 농촌사랑운동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등 농촌사랑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충북농협은 한농연충북회원카드를 발급해 회원들에게는 연회비 면제, 각종 포인트적립, 영화티켓 할인, 환전수수료 할인, 농협하나로마트 2% 할인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농연과 농협은 또 회원들이 사용하는 카드이용금액의 0.1%를 발전기금으로 적립해 충북도연합회의 발전에 쓰기로 했다. 송인범 회장은 “회원카드 발급으로 조직에 대한 회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양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사 창간25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국농어민신문사의 창간25주년 기념식 행사가 지난14일 한국마사회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신문사 주주인 한농연 회원들과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박홍수 농림부 장관, 김광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황민영 농특위원장 등 기관·단체·업계인사 1,0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서정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농어민신문은 대안있는 비판으로 21세기 농어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농어민신문은 이제 농민이 진정한 주주가 되는 신문으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농어민이 웃을 수 있는 그 날까지 신문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